음식료
(Overweight)

쇠고기가 비싸서 못 먹는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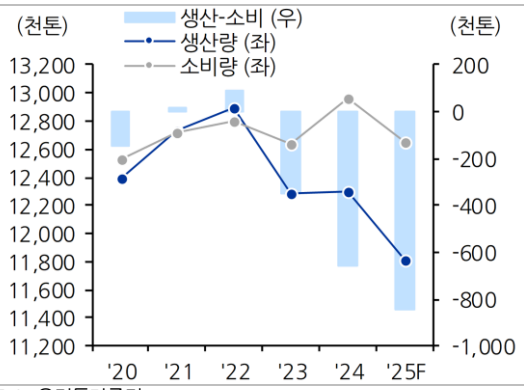
음식료 산업 포인트

음식료 산업은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을 창출하며, 진입 장벽이 높아 독과점이 형성되어 있는 성숙기 산업. 그러나, 인구 증가에 따른 양적 성장에 의존하는 특성을 지니므로 선진국 업체의 경우 신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해외 시장 진출이 필수적

음식료 김진우_ 02)368-6195_ jinwookim@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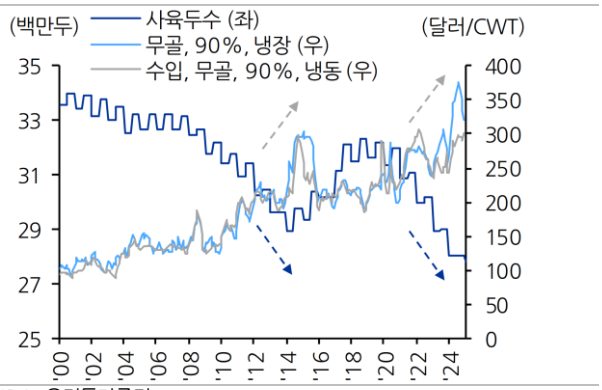
- 2025년 1월 기준 미국의 육우(Beef Cattle) 수는 2,786만 마리로 전년 대비 1% 감소. 이는 1962년 이후 64년 만의 최저치. 자국 내 육우 공급이 지속 감소하며 미국의 쇠고기 수입 의존도는 지속 확대 중
- 미국의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연간 약 60파운드로, 쇠고기는 닭고기(100파운드/연) 다음으로 많이 소비되는 육종. 2024년 기준, 미국은 연간 108억달러의 쇠고기를 수입하며, 이는 도체 중량 기준 약 200만톤. **전체 우육(HS 0201~0202) 수입액의 41%가 캐나다 및 멕시코산이었으며, 신선육으로 한정할 경우 그 비중이 71%까지 확대**
- 현재 유예 중인 對 캐나다 · 멕시코 관세 부과 시 수입 쇠고기의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미국 축산농가들이 반사이익을 보아야 하지만, **자국 내 공급 부족으로 오히려 시장 불균형만 더욱 심화될 것이라 판단**.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을 차치하더라도,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육우의 사육주기를 고려할 때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는 것은 어려움. 따라서 관세 부과는 자국 축산업의 수혜 없이 **소비자 부담 확대, 공급망 혼란**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전망

도표 1. **미국의 쇠고기 생산량은 지속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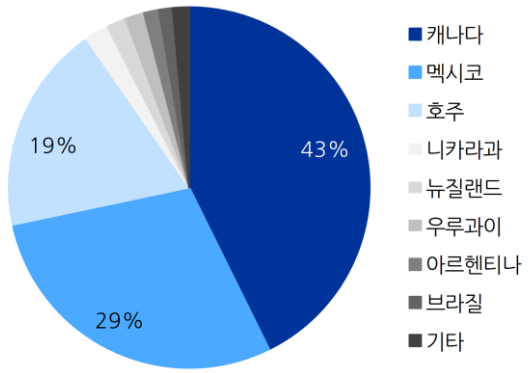
자료: USDA, 유진투자증권

도표 2. **미국 육우 사육두수 및 쇠고기 도매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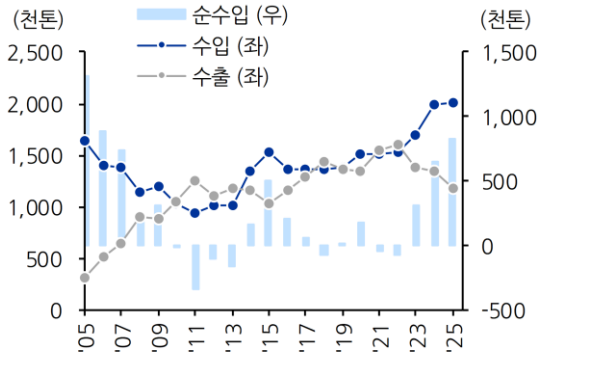
자료: USDA, 유진투자증권

도표 3. **미국의 신선우육 수입액 비중 (2024)**



자료: KITA, 유진투자증권

도표 4. **미국의 소고기 수입량 추이**



자료: USDA,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 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6%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4%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4.12.31 기준)